

일본 히타찌금속 직무발명대가 사건에서 「상당한 대가」판단은 동경고등법원으로

히타찌(日立)금속의 전직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상당한 대가」에 관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2003. 8. 29 동경지방법원에서 상당한 대가로서 1,232만 5천엔을 인정한 것에 불복하여 원고인 전직종업원과 피고인 히타찌금속 쌍방이 동경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원고가 항소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발명자의 공헌도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된 본건에서 회사

의 공헌도가 90%, 발명자의 공헌도가 10%라고 한 판례가 확정되어 버리면 좀더 일반적인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본건 판례를 근거로 발명자의 공헌도는 반드시 10%이하로 되어, 이후 직무발명의 재판 또는 계약교섭에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점을 남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처 <http://braina.com>

Smart Tag을 둘러싼 특허 침해 소송에서 MS 승소

소프트웨어메이커 Hyperphrase Technologies가 Microsof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위스콘신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Barbara Crabb판사는 9월 24일, Hyperphrase의 소를 물리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약식재판(summary judgment)을 요구하는 Microsoft의 주장을 받아 선고되었다. Hyperphrase는 소송에서, Microsoft의 Office 소프트웨어의 최근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Smart Tag는 HyperPhrase가 데이터 스토리지 관련 방법에 관해 취득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제소하고 있었다.

Smart Tag에 의해 문서의 작자는 다른 문서와 Web페이지의 정보에 링크를 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Microsoft는 이전에, 이 기술을 Windows XP에 채용할 계획을 중지하였고 광범한 이용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Microsoft측은 소송에서 XML 베이스의 Smart Tag은 Hyperphrase의 방법과는 기능이 다르고, Hyperphrase의 특허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 Barbara Crabb판사는 이 주장을 지지하고, 본심리에 앞서 소를 물리쳤다.

출처 ZDNet

유럽재판소(ECJ)의 유럽상표청 언어요건을 지지하는 판결

(ECJ decision C-361/01, Kik v. OHIM,
9 September 2003)

유 럽재판소는 상기 사건번호의 판결에서 원고 故Mrs. Kik의 상속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故Mrs. Kik은 공동체상표를 출원하면서 OHIM(유럽상표청)이 정하고 있는 언어 중에서 제2언어를 지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OHIM은 그녀의 출원을 거절하고 그 이의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그녀는 OHIM의 언어요건의 유럽공동체법상의 적법성을 쟁송하였고 결국 실패한 것이다.

OHIM의 언어요건은 공동체상표규정(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115조에 규정하는 바대로 '상표청의 언어(languages of Office)'는 스페인어, 독일어,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로 되어있으며 공동체 상표출원의 경우에 일단 출원은 현재 11개국인 유럽공동체국가 언어 중 어떠한 언어로도 출원이 가능하나 출원시 지정하여야 하는 제2언어는 상기 다섯 개의 '상표청의 언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2언어는 주로 이의신청과 취소절차에 이용되는 언어인 것이다.

재판소는 위 사건 기각 판결의 요지에서 해당 상표규정은 유럽공동체조약이나 공동체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공동체국가들의 언어들 중 입법자들이 상기규정의 5개 언어로 제한하여 다르게 취급하도록 선택한 것은 그 다섯 언어들이 유럽공동체 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언어들이므로 적당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러한 ECJ의 판결에 대하여 OHIM은 지난 8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온 OHIM의 법적 기초를 확인한 판결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판결이 OHIM으로 하여금 공동체상표등록의 효율적인 비용 효과적 절차를 계속적으로 제공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출처 OHIM Press Release CP/03/05

발명장려 환경동토 앞서가는 우리기술

Tri-Vision, 도시바를 V칩에 관한 특허 침해로 제소

캐나다의 Tri-Vision International사는 도시바와 그 관련 회사가 동사의 V칩에 관한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하여 캐나다 연방 정부 법원에 제소했다고 발표하였다. 동사가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은 캐나다 특허 번호 2,179,474.

제소된 기업은 도시바와 그 관련 회사인 동사의 캐나다 법인 Toshiba of Canada, 미국 법인 Toshiba America, Toshiba America Consumer Electronics의 4사. Tri-Vision측은 도시바 및 그

관련 회사에 의한 캐나다 특허 2,179,474의 부정 사용, 동기술을 부정하게 채용한 TV세트의 제조, 판매, 캐나다에의 수입, 캐나다로부터의 수출 금지를 청구하고 있다.

TriVision International사는 V칩에 관한 특허 기술을 라이선스 제공하고 있다. Tri-Vision Electronics사와 Tri-Vision Technologies International사는 동사의 자회사이다.

출처 biztech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켈컴과의 라이선싱 소송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 이하 TI)사는 무선 전화기 기술 업체인 켈컴사가 핸드 셋에 관한 비밀 유지 라이선싱 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23일 화요일 발표하였다. TI사는 켈컴사가 핸드셋 제조업자들이 켈컴으로부터 CDMA 칩 세트를 구입할 때에만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TI사의 대변인은 켈컴과의 비밀유지 협약의 조건 때문에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달라스에 기반을 둔 TI사와 샌디에고에 기반을 둔 켈컴사는 2005년까지 제3자의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무선 기술 표준에 대한 집적회로를 서로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지난 2000년도에 맺었다. 켈컴사는 미국과 아시아에서 최고의 무선 기술인 CDMA 무선 전송 표

준에 대한 대부분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며, TI사로부터 점점 증가하는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TI사는 이동 전화기에 대한 반도체 생산 1위의 기업으로, 켈컴사가 크로스-라이선싱 협약의 조건을 준수하고, 켈컴사가 기업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거짓의 혹은 오도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원을 법원에 내었다. 이번에 TI사가 델라웨어 Chancery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양사간의 지속적인 소송 분쟁의 하나이다. 켈컴사는 지난 7월 25일에 협약의 비밀유지 조건에 관하여 델라웨어 법원에 TI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9월 8일에 TI사는 켈컴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다. 동 명령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출처 Reuters

「TIGERS」상표소송, 동경고등법원이 한신타이거와 타이거보온병에 화해 권고

프로야구·한신타이거스가 타이거 보온병의 등록상표「TIGERS」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무효신청을 하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내려지자, 보온병측이 금년 7월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를 동경고등법원에 냈다.

제1회 구술변론에서 재판부는 양사에 화해를 권고했다.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소송이라도 당사자대립구조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TIGERS」의 상표는 양사가 1986년 서로의 권

리를 인정한 것으로 합의하고, 타 기업이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단측이 수취할 승락료의 일부를 보온병측에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보온병측이 가정용전화용품類와 鍋類의 2분야에서 상표등록하자 구단측이 반발해서 1998년 특허청에 상표등록무효를 신청하고, 금년 6월에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졌다.

출처 넷케이인터넷판신문, (日)야후인터넷뉴스

발특2003/11



값싼 석탄의 석유추출법

석탄을 채취하는 업체는 점차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을 하는 등 석탄이 우리 생활에 쓰이는 규모는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만약 석탄, 그 중에서도 가장 값이 싼 역청질의 석탄에서 석유를 추출할 수만 있다면 석유업체는 석탄을 채취하는 업체로 바꾸어야 할 것이고, 석탄 매장량이 많은 나라는 삼시간에 중동국가가 누리던 부를 누릴 것이다.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방법이 지금껏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그런데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출신 송 박사가 다년간의 연구를 거쳐, 석탄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것이 일반 구매 가격보다 더 싼 방법을 개발해냈다.

송 박사가 개발한 방법은 기존의 석탄 액화 방법을 약간 변형시킨 것으로 물을 더 첨가하고, 열과 압력을 낮추어 액화 효과를 극대화하면 마술처럼 석유가 나온다는 것이다.